

“모두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해요”

내일 KBS전주방송총국 광장서 수학체험한마당 열려

제11회 전북수학체험한마당이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KBS전주방송총국 야외 전다공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마당은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수학체험센터 주최 및 주관, 도교육청, KBS전주방송총국, 전북초등수학교육연구회, 전북중등수학교육연구회에서 후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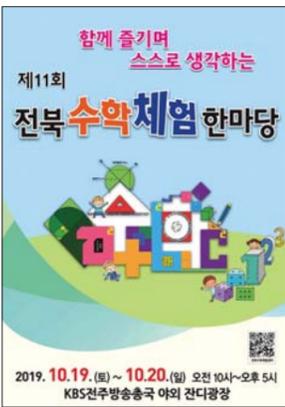
전북수학체험한마당은 2009년부터 매년 수학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해보는 활동을 통해 수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다.

또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즐거운 학습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올해 한마당에서는 총 95개의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며, 유치원 및 초등 학교 저학년용을 위한 키즈부스도 운영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수학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수학클리닉도 진행된다.

수학적 내용을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개인별 및 팀별로 열리는 동시에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가족수학게임도 진행된다. 더불어 2019년 전북학생계 활용발표회에서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의 본선이 진행되고 다양한 작품도 전시될 예정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을 이용하여 수학적 모형을 만들어내는 ‘수학구조물 만들기 대회’는 ‘수학으로 만나는 행복한 우리 학교’라는 주제로 초·중·고 50팀이 실력을 뽐



내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BS전주방송총국 주변 곳곳에서 수학을 찾아내는 ‘도심에서 찾아 즐기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수학 산책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 들에겐 창의적 체험활동 확인서도 발

급된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단순 문 제풀이 위주의 수학교육에서 벗어나 만지고 체험하는 수학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5년 5월 전북수학체험센 터를 개소했다.

2017년 익산으로 자리를 옮긴 전라 북도교육청 3층에 위치한 전북수 학체험센터는 수학더하기실, 수학나누 기실, 수학사랑실터, 수학체험관, 수학 놀이터 등 다양한 수업 및 체험공간 을 마련하고, 학교교육과정 수학체험 교실, 지역으로 찾아가는 수학체험 이 동교실, 수학클리닉, 수학교원 역량강 화 자율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찬 전북과학교육원 원장은 “벌 써 열한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전북 수학체험한마당은 학생들에게 함께 즐기며 만지고 생각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수학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교과라는 인식을 갖게 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문적 발전 위해 더욱 정진

전북대 백기태 교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학술상 수상

전북대 학 교 백기태 교수(공과대 학 토목/환 경/자원에너지공학부 환 경공학전공)는 최근 고 려대학교에 서 열린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에서 학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로 제1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백 교수는 토양지하수 분야의 활 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최근 5년 간 토양 및 지하수 정화 분야에서



80여 편의 SCI급 논문을 게재하는 등 세계 수준의 탁월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양지하수 분야의 학 술적 발전과 국제화에 크게 기여 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 상자로 선정됐다.

백기태 교수는 “그동안 함께 연 구를 수행한 대학생들의 도움 없 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 문에 이 상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수상한 것”이라며 “토양지하수 분 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더욱 정 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직업계고에 대한 궁금증을 한방에!

전북교육청, 학부모·학생 대상 특성학교·마이스터고 설명회 열려

전북교육청은 특성학교·마이스터 고 진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7시부터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직업계고등학 교 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특성학교·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소개와 계열별·전공별 특 징 및 졸업 후 진로 안내 등이다.

또한 직업계고 졸업생 및 학부모 강연, 학교별·계열별 개별 상담 등 도 준비돼 있다. 특히 계열별 진로 안내강사와 진로 상담위원이 직접 참 여해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 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직업계고에 대한 이해를 높 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특성학 교·마이스터고 설명회’도 진행했다. 컨설팅단이 도내 중학교로 직접 찾 아가 진학 설명회 및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4일 시작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중학생 및 학부모, 교사에게 특성학교·마이 스테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자리”라며 “취업 맞춤형 직업교육 등 특성화된 교육과정 홍보 를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이 개 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비전대, 국민연금공단과 취업 위한 교육과정 협약체결... 오픈캠퍼스 운영으로 지역인재 양성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7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 공단(이사장 김성주)과 ‘오픈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픈캠퍼스 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다. 이번 협약으로 전주비전대 학생 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취 업을 위한 직무 및 현장실습교육을 받 게 됐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4일 동안 32시간 의 교육을 받으면 2학점이 부여됨과 동시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공단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앞으로 전주비전대 학생들은 국민연금공단 취업이 용이해 질 것으 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가 17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오픈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리공고 육상부, 전국체전서 5개 메달 획득 쾌거... 육상 명문학교로 화제

지난 10일 폐막된 제100회 전국체육 대회에서 이리공업고등학교 육상부가 5개의 메달을 획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전국체전에서 여고해머와 남고 포환, 여고 포환, 여 고 창까지 총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 었고, 여고 원반에서는 은메달을 획득 했다. 남고 해머는 전국 4위를 기록했 다. 이처럼 육상 필드 투척 8개 종목

에서 한 팀이 골고루 여러 개의 메달 을 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대회 신기록 1개와 자기기록갱신 4개 를 수립하면서 육상 명문학교로 거듭 나고 있다.

최진엽 육상감독은 “40년 가까이 지 도자 생활을 해왔지만 한 학교에서 이같은 성적을 낸 적은 본적이 없다” 며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따름이라” 고 말했다. 또 최 감독은 “교장 선생

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열원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 온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 서울 전국체전을 11위 로 마무리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진한 종목들이 있었던 반면, 육상 필드부문에서 금메달만 4개를 따는 이리공고의 선전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 위안이 됐다. /장은성 기자



이리공고, 전국기능경기대회서 눈부신 활약

건축설계 종목 2년 연속 은메달

최근 부산시에서 열린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17개 시도 대표 1,847명의 선수가 참가해 50개의 직종 별로 기량을 겨뤘다.

이 대회에서 이리공업고등학교는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건축설계/CAD 종목에서는 건축디자인과 3학년 김찬우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전기기기 종목에서는 전 기자동화와 3학년 양민석 학생이 동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건축설계/CAD 종목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은메달을 획득해 이리 공고의 기량을 뽐냈고, 전기기기 종 목은 작년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동

메달을 획득하면서 한 층 발전한 모 습을 보였다.

전기기기 종목 오요환 지도교사는 “양민석 학생이 3년간 방학과 휴일도 반납하고 실습 훈련을 한 결과를 전 국 대회 입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양민 석 학생의 대기업 스카웃 면접 준비 및 전기 산업 기사 취득에도 많은 도 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에는 전북에서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17개 시도 선수단 및 대회 관계자 2 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술 향상 및 우수 숙련 기술자 발굴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의 숙련 기술 축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55
(산북리 산23-30)
☎ 063-263-6621~2